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2024. 9.



提 出 文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 요약 >

1. 행사 개요

□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 계획

- 개최 시기 : 2025년 6월 2일 ~ 6월 5일(4일간)
- 개최 장소 : 고양시 킨텍스 (잠정)
- 주무 부처 및 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
- 참가 규모 : 70개국 참관객 2,000명(내국인 800명 및 외국인 1,200명)
- 주제: 유엔환경계획(UNEP)와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계획
- 소요 예산 : 40억 원(전액 국비)*
 - * 국제행사계획계획서 제출(2024.4) 이후 변경
- 주요 행사 : 세계 환경의날 기념식 행사 및 부대행사(자원순환주간 및 환경정책 전시·홍보관 운영)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 기대효과

- 대규모 연례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국내 환경 정책의 대내외 홍보
-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한 국제사회 기여 강화
 - 2024년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INC-5) 국내 개최 및 2025년 세계 환경의날 행사를 연계하게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 강화
- 개최 기간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 해외 홍보·교류 및 수출 지원 채널 마련

□ 「2025 세계 환경의 날」 주요 프로그램

-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
- 자원순환 고위급 대화, 미래세대 포럼, 홍보 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

〈주요 프로그램〉

일자	행사명	참여 대상
6.2(월)	미래세대 환경포럼	청년 및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환경부
6.3(화)	환경미술 공모전	전 국민 참여 가능, 행사기간 시상식 및 전시
	순환경제 과학정책 포럼	국·내외 전문가, 정책담당자
6.4(수)	자원순환 고위급 대화	환경부장관, UNEP사무총장, 다국적기업 대표 등
	25년도 Green IR Day	투자사 대상 환경 산업분야 기업 발표
6.5(목)	본행사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국내·외 고위급, 국제기구 관계자, NGO, 기업 등
6.2(월) ~6.5(목)	환경 전시·홍보부스 운영	정부부처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환경기업 등

자료: 환경부(2024. 5.),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계획(안).

2. 정책성 분석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① 국익과 공익 기여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익과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 2024년까지 마련될 경우 2025년에 더욱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 아래 해당 의제를 선도하며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
 - 본 행사에 참여하는 UN 회원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환경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소개
 -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비 노력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본 행사를 통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KIEP 설문조사(2024. 6.) 결과 응답자(1,000명)의 60% 이상이 본 행사의 개최 목적 및 기대효과가 국익 및 공익에 기여한다고 답변

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본 행사는 유사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주관기관과 UNEP가 공동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최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환경부는 국내 환경의 날 행사('96년~)를 통해 본 행사와 거의 동일한 유형의 부대행사(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기업홍보 부스 등)를 운영해 온 역량 보유
 - 세계자연보전총회('1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14년),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21년) 등을 개최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한 경험 보유
- KIEP 설문조사(2024. 6.) 결과 본 행사 프로그램이 개최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본행사: 45%, 부대행사: 54~63%)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환경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내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계획에 부합
 - 환경부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산·설계, 소비 및 재활용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행사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도 해당 계획 하에서 추진 중
 - 본 행사를 통해 순환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연관 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과제(‘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도 글로벌 환경 협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행사 개최목적에 부합

④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관계부처 합동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3.)」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
 -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2.10.)」은 2024년 이후 본격화될 Post-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국제사회 책무 이행’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3.)」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경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본 행사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부합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UNEP 공동주최 행사로서 이미 한국의 유치가 결정되었고, 주관기관이 보유한 다수의 유사 행사 개최 경험과 UNEP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때, 행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판단됨.
- 다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 시점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은 데 비해 『기본계획(수정)』 행사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도로 다뤄지고 있어, 계획 자체가 충분히 수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행사의 주제와 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외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만의 차별적인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② 개최시점 적절성/필요성/중복성

- (개최 시점의 시의적절성)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환경의 날(6월 5일)’이 포함된 기간을 개최시점으로 두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됨.
- (유사행사 필요성)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미개최할 경우 타 유사행사가 대신 개최할 수 있는 성격의 행사가 아님.
- (유사행사와의 중복성) 국내에서는 동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유사행사가 개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행사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주관기관은 70개국으로부터 총 2,000명(외국인 1,200명, 내국인 800명)의 참관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개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한 외국인 참석자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④ 홍보 적절성

- 현행 국내 중심의 홍보계획으로도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참가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내 홍보는 주관기관이, 국외 홍보는 UNEP 사무국과의 협조로 진행 예정인데, 주관기관이 해외홍보 세부 방향을 보완하고 해외홍보에 적극 개입하여 해외 참가자 1,200명의 유치를 위해 분발할 필요가 있음.

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주관기관은 장기간 개최해 온 「환경의 날」 기념식 및 UN 환경 관련 기구와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됨.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고양시 킨텍스(KINTEX)를 잠정 행사장으로 계획하고 있어 기존의 컨벤션 시설을 대여하여 활용할 계획이므로 시설물 활용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행사 개최 예정 시점인 2025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바, 조속한 행사장 확정 및 확보, 시설물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연계성 및 접근성

- (연계성) 환경부의 주 업무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과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 「환경의 날」 및 환경 관련 국제행사 개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한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접근성) 잠정 행사장으로 선정한 고양시 킨텍스(KINTEX)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

- (과거 유사 행사 성과) 주관기관은 총 29회의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3회의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2023 유엔기후변화 협약 적응 주간」,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2021년) 등의 개최 성과를 보유함.
 - KIEP 설문조사(2024. 6, 전국민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인프라 확보) 잠정 행사장인 킨텍스(KINTEX)의 컨벤션 시설 활용 시 본행사 및 부대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 장소 및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③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

- 동 행사의 주무부처이자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지자체와의 협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승인 전에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추진하여 선유치 함.

④ 지역주민/기업과의 협의

- 지역기반의 행사가 아니므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주행사나 부대행사 모두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⑤ 지역주민의 지지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24. 6.)에 따르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도(적극 지지 및 대체로 지지)는 70.5%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의 공익성 및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국제적인 권위 등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이며,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이래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UNEP)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1997년 서울에서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환경정책 주무 부처가 25년 만에 재유치한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이 필요함.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3.4%로 나타났다.

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중앙정부 부처가 주관하면서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한 유사 성격의 국제회의와 비교할 때 본 행사의 국고 지원 요청 규모가 과도하지 않지만, 세부 행사 경비를 면밀한 책정 및 집행을 통해 국고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중앙정부에서 전액 국비를 요청한 국제회의 유형의 행사에서 본 행사보다 더 많은 국고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2020 ADB 연차총회 85억 원, 2018 OECD 통계포럼 49억 원) 있음.
 - 최근 국비 지원을 요청한 2024 유엔공공행정포럼(3일 2,500명 규모, 30억 원 국비 요청),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일 1,300명 규모, 30억 원 국비)와 비교하면, 본 행사가 다양한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행사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전망
-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 당시(70억 원) 보다 총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여

국고지원을 낮춘 점은 국고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부합한 노력이나, 초기부터 면밀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주무부처는 본 행사 및 다양한 부대행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국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사업비 분석

□ 주관기관은 수정 제출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통해 총 사업비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음.

- 행사별 조성 및 시스템 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홍보비 및 일반 용역비도 각각 7.5억 원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비 적정성 검토 기준

- 사업비 적정성 분석은 사업계획예산에 대해 '수량 적정성 검토', '세부수행계획 기준에 따른 원가 재산정', '적용단가 적정성 검토', '섭외성 비용 검토', '항목 적용 타당성 검토', '세부기준 부재에 따른 검토율 적용' 등으로 검토하였음.

□ 총 사업비(4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96.2% 수준인 38.5억 원으로 분석되었음.

- 원가조사 등을 통해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약 1.5억 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행사장 임대료가 가장 많이 과다 산정되어 약 1.3억 원 감액이 필요한 반면, 초청비는 1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원가검토 결과상으로는 대체로 사업비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부 용역 및 위탁 비용의 절감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일반용역비(PCO) 7.5억 원 및 위탁비용(한국환경보전원) 3.5억 원을 합산하면 11억 원의 용역 및 위탁 비용으로 전체 행사 비용의 25%를 상회하고 있어서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억 원)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초청비	5.0	6.0	1.02	120.5%
차량 임차	0.7	0.7	-0.07	91.0%
행사장 임대료	2.8	1.5	-1.34	52.3%
행사별 조성 및 시스템	9.0	8.2	-0.77	91.5%
부대시설 조성 및 환경조성	1.1	1.0	-0.11	90.3%
홍보비	7.5	7.4	-0.16	97.9%
사후관리비	0.5	0.5	-0.02	96.0%
일반용역비	7.5	7.2	-0.29	96.1%
회의 임차 및 준비비	0.1	0.1	-0.01	92.4%
위탁비용(보전원)	3.5	3.7	0.19	105.4%
예비비	1.0	1.0	-0.04	96.0%
준비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운영	1.2	1.3	0.06	104.9%
총 사업비	40.0	38.45	-1.54	96.2%

4. 결론

- 본 행사의 정책성은 준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83.08점 (100점 만점)으로 도출
 - 동 행사는 ‘행사개최의 공익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행사계획의 우수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AHP 평가자 8인의 최종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표준화점수	최종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88.09	83.08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79.05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79.75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84.95	

주: 배점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값이고 최종평점은 배점과 항목별 표준화점수와의 가중평균으로 산출

- 행사주관기관은 이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
- 주관기관은 1년도 남지 않은 본 행사의 개최를 위해 조속히 개최지역 및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행사는 매년 UNEP 주관하에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행사라는 점을 감안한 행사 준비가 필요함.
 - 주관기관은 부처내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의날 행사의 부합하는 부대행사 및 본 행사를 준비하고, 산하기관 및 PCO 등과의 행사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사 개최를 위해 전액 국비에 의존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민간의 후원 등을 통해 국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념식 행사 당일 대규모 국내외 내빈이 참여라는 점을 고려한 안전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대행사 등에서도 의료 및 방역체계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사전에 수립·대응할 필요